

발 간 사

최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문명의 충돌’을 해소하고 ‘문화 간 화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고대 문명 간 교류를 담당해 온 ‘실크로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명 간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의 유목문화는 고대로부터 신봉되어오던 애니미즘,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주변의 마니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경험과 지혜는 오늘날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명 간의 이해와 화해의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이 채택되고 아태지역에서 해당 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한국에 설립된 후 센터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대 간 전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4년에 센터는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구전전통과 서사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타슈켄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이주생활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문자기록 보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문화를 전승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에 대한 지혜는 주로 구전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기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은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구전전통과 서사시의 가치를 재조명했던 국제학술회의 발표문들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출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활동이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시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문가 여러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박필호 소장님 그리고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알리셰르 이크라모프 사무총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허 권